

# 양적완화만으로 경제 활력 못 찾아… 정부·기업, 구조 개혁

마이클 스펜스(72) 뉴욕대 교수는 시장의 신호해석 전문가다. 노동시장에서 마주한 고용자와 노동자가 어떤 신호를 주고받으며 고용과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지를 연구해 2001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 사공일 본사 고문 겸 세계경제연구원(IGE) 이사장이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스펜스 교수와 마주했다. 세계 경제뿐 아니라 유럽 테러 사태 등 다양한 신호를 해석한 내용을 교류하기 위해서다.

▶사공=프랑스의 폴루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며칠 전에 전쟁 선언까지 할 정도로 유럽연합(EU) 전체가 테러 위협을 받고 있다. 그 이전부터 시리아에서 밀려드는 난민 등이 EU에 큰 도전이었다. 테러와 난민 문제는 각기即便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유럽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스펜스=얼마 전 접시를 (이탈리아 출신) 과처에게 “15~20년 전 젊은이들에게 ‘당신의 자녀가 (나중에) 스스로 유럽인이라고 생각할까?’라고 묻는다면 그 젊은이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했을까?”라고 물었다. 내가 처제는 “유럽인이라고 대답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고 했다.

▶사공=유럽 통합을 꿈꾸 사람들의 뜻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 같다.

▶스펜스=그렇다. 유럽 지도자들이 애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긴 시간이 흐른 뒤에나 통합의 꿈이 이뤄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몹시 어려워 보인다.

▶사공=단기적 측면에서 (테러사태 때문에) EU 내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26개국 간의 생활권조약(Schengen Agreement)

이나 경제성장과 재정적자 비율 등에 관한 마스트리흐트조약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 으로 보는가.

▶스펜스=생활권조약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EU의 다른 회원국 국민의 출입국을 어느 정도 제약하는 일은 불가피할 듯하다. 그러나 생활권조약 파기 같은 일은 없을 것이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사공=통계를 보면 미국은 빠른 기술 변화와 자동화, 정보기술(IT)의 확산 등에도 불구하고 노동생산성이 저조하다. 이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는가. 지지부진한 노동생산성과 부족한 총수요에 고거한 ‘정기침체(Secular Stagnation)’을 주장하는 유명 경제학자들도 있다. 물론 생산성에 관한 경제학자들의 잘못된 판단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지만 말이다.

▶스펜스=저조한 노동생산성은 통계 작성 방식상의 문제와 통계에 반영될 때까지의 시차(time lag)가 있었다. 예를 들면 과거에 수퍼컴퓨터의 활용으로 일기예보는 더욱 정확해졌으나 그 효과가 국내총생산(GDP)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인터넷이 확산돼 경제 전반에 걸쳐 그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는 늘 시차가 있었다.

▶사공=나도 생산성이 낮아 장기침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회의론에는 찬성하지 않는다. 어쨌든 당신은 장기침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는 것으로 드린다.

▶스펜스=물론 얼마나 긴 암복에서 보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장기침체란 말 자체에 부기감을 갖는 것은 해결책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레리 서비스 전 미국 재무장관이 장기침체를 풀고 나온 것은 이 문제에 관한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마케팅 수단이라고 본다.

▶사공=내가 보기에도 그렇다. 서비스가 장기침체 극복을 위해 필요한 부자, 특히 미국의 경우 인프라 부지를 강조하고 사람들의 주의를 환기시킨 데는 성공했다고 본다. 그런데 당신은 최근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양적완화(QE) 효과를 놓고 서비스와 지상 논쟁을 벌이고 있다. 흥미롭게 봤다. 당신은 QE가 실물투자보다는 기업의 자자주 대입 등 금융자산 운용에 더 열중하게 했기 때문에 실물투자에는 큰 효과가 없었다고 한

# 함께 나서라

## 하버드 강의 때 빌 게이츠에게 A학점 줘



두 사람은 글로벌 경제 현안뿐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유럽의 테러 사태에 대해서도 깊은 이야기를 나눴다.

▶ 사공=당신은 중국을 자주 방문하고 중국 정부와 고위층에게 조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의 미래를 어떻게 내다보고 있는가.

▶ 스펜스=과거에 나는 중국에 대해 낙관적이다. 중국은 다른 신흥국과 겪은 근본적 장점을 많이 갖고 있다. 그중에서도 능력을 중시하는 오랜 전통, 공직자의 충성심, 높은 교육열, 실용주의, 전략적 사고 등을 꼽을 수 있다. 대포적 성장을 위한 공공투자에 브리질 등 다른 신흥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점도 들 수 있다.

▶ 사공=현재 중국은 공공투자를 포함한 모든 투자가 지나치게 많아 고민하는 실정이다.

▶ 스펜스=아주 정확한 지적이다. 중국이 2009년에 뉴모델을 선언하고 정책조정을 해야 했다. 5년 전에 그렇게 조언한 적이 있다.

▶ 사공=현재 중국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은 무엇이라고 보나.

▶ 스펜스=중국 중신층이 두꺼워지면서 정치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면 정치체제는 아직 몰리지 않은 상태다. 앞으로 중국 정치체제는 다음세 민주주의로는 아니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바뀔 것이다. 그리고 과거에는 중국이 외국의 성공사례를 배우는 티도가 높았는데 현 리더십하에선 좀 바뀐 듯하다. '서양 교과사는 필요 없다'는 식이다. 또한 정부 풍세 상황이 높아지고 반개방성이 일부 나타나고 있다.

▶ 사공=중국은 2000여 년간 지속된 자국 중심의 세계질서에 머물러 있다. 요즘 그런 과거의 영광을 되찾으려는 생각이 중국 사회에 퍼져 있다고 본다. 그렇지만 중국 사회에 퍼져 있다고 본다.

▶ 스펜스=좋은 총고다.

▶ 사공=한국은 중국보다 조금 일찍 시장

### マイ클 スペンス ニュ욕대 研究教授

경제학에 '시장 신호' 개념 첫 도입  
29세 때 논문으로 29년 뒤 노벨상

"진정으로 흥미 느끼는 분야를 선택해라. 또 우리가 잘 모르는."

200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マイ클 スペン스(72)는 뉴욕대 경제경영학 석좌교수의 조언이다. 사공일 본사 고문이 "젊고 열정적인 경제학자나 학생이 많다. 다들 노벨상을 받고 싶어할 것"이라고 하자 한 얘기였다.

대답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했다. 이탈리아인 부인을 둔 그가 강의 시즌이 아닐 때 밀라노에 머물기 때문이다. 자택 인근 호텔에서 만난 그는 "연구 팀"도 했다. "세계화를 일종의 비자(bazaar·시장 거리)로 여기는 데 나에게 점자 네트워크를 보인다. 어떤 프레임워크가 필요하고 플랫폼도 늘어난다. 시장 크기는 확장되고 있다. 포괄적 측면도 있고... 그 실상을 포착할 수 있다면 진정 경제학의 토대를 재구축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조언을 더했다. "오래된 거대 논쟁에 많은 시간을 소모하지 말라. 또 어라. 누가 50, 60대의 거시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걸 신경 쓰겠나. 그들은 오랜 전장을 하는 것이다. 그네들끼리 그냥 하게 둬라."

그 자신은 노벨상 수상을 기대했을까? 여느 노벨상 수상자처럼 그 역시 "예상 밖"이란 답을 했다. 그에 그럴 법한 이유가 있다. 학자로서 한동 마침진 나머지에 하버드 대문대학장이 됐다. 대학 행정으로 빠진 셈이다. 전일자마다 세제적인 경제학자이기도 한 헨리 로소브스키는 당시 "당신이 이 일을 맡으면 노벨상은 결코 못 받을 것"이란 얘기를 했다고 한다. 스펜스 교수도 "나는 (연구가 아닌) 다른 길을 선택한 것"이라고 여겼다.

그는 "노벨상은 팔 채류일(1970년 수상)이나 카네스 애로(72년), 얀 텁베르크(69년 초대 수상자)과 같은 사람의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새뮤얼슨은 혼다 경제학의 아버지, 예로는 이론 경제학과 후생 경제학에 대한 독창적 연구로 이름 높았다. 텁베르크는 경제동학과 경제분

석을 발전시켰다.

그의 박사학위 논문 '시장 신호'가 결과적으로 그를 노벨상으로 이끌었다. 노벨상을 받게 된 1973년 논문은 한 해 전인 72년 하버드대 박사학위 논문을 바탕으로 쓰였다. 그는 경제학에 신호란 개념을 처음 도입한 화자다. 시장 신호 이론은 정보가 비대칭적인 상황에서 한 개인이 독점하고 있는 정보를 그 사람이 표출하는 행동, 즉 신호에 따라 추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스펜스 교수는 43년 미국 뉴저지에서 태어났으며 프린스턴대(철학)와 영국 옥스퍼드대(수학)를 거쳐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다. 강단은 하버드대에서부터 섰다. 그 무렵 그의 대학원 이론 과정을 학부생 두 명이 들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와 스티브 بال을 냈다. 둘 다 A를 받았다고 한다.

2010년부터 뉴욕대 스턴경영대학원 교수진으로 합류했다. 지금도 열정적으로 가르치고 글을 쓰고 있다. 세계 지도자들의 온라인 토론판인 '프로젝트 신디케이트'의 주요 활동이다. 밀라노=교장에 특파원 ockham@joongang.co.kr

## A. Michael Spence

マイ클 スペンス(1943년 미 뉴저지주 출생) / 뉴욕대(NYU) 교수 / 스톤퍼드대 비즈니스스쿨 교수 / 200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 1973년 논문 '노동장 신호' 발표 / 하버드대(경제학 박사) / 옥스퍼드대(수학 석사) / 스턴퍼드대(철학 학사)

합해 나갈 것으로 본다.

▶ 스펜스=중국의 공공 부문은 아주 거대하다. 이런 공공 부문 개혁과 민영화에 대한 반대가 만만찮다. 앞으로 중국의 공공 부문 개혁과 민영화가 어떻게 될지 확실치 않다.

▶ 사공=나는 중국 경제가 점진적으로 시장경제화할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중국 위원회가 국제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기축통화가 되면 자본계정과 금융 부문의 자유화가 불가피하다. 중국 경제는 당국이 1980년대 한국의 자본계정 자유화와 자본시장 개방 5개년 계획과 같은 순차적 계획을 미리 발표하고 추진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스펜스=좋은 총고다.

▶ 사공=한국은 중국보다 조금 일찍 시장 개방, 특히 금융과 자본 시장을 개방해 성

공하기도 했고 실패하기도 했다. 이런 한국 사례가 중국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이제 당신이 세계 경제 미래를 어떻게 보는지 이야기해 보자. 당신은 최근 저서에서 세계 경제의 미래를 아주 나관적으로 본다. 인류의 75% 정도가 금융 중심지에

는 오늘날의 고소득 국가 국민의 생활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단 신용국 정책 담당자들이 힘을 내면 정책을 퍼고 적절한 국제 협력과 정책협조가 이뤄진다는 전제가 있었지만 말이다.

▶ 스펜스=맞다.

▶ 사공=나도 세계 경제의 장래에 대해 낙관적이다. 다만 현재 국제 경제협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걱정된다. 세계가 거의 무극상태(No Polarity)하에서 주요 20개국(G20)이라도 제대로 작동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끝하게 여긴다.

▶ 스펜스=전적으로 동감이다. G20은 꽤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 사공=꼴로 한국의 젊은 이들, 특히 젊은 경제학자들에게 도움이 될 충고를 해주길 바란다. 노벨상을 받게 되리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가?

▶ 스펜스=없었다. 그래서 노벨상 수상을 놓았게 생각한다. 나는 후배들에게 "가장 기억할 수 있는 분야는 당신들이 흥미를 갖고 재미를 느끼지만 아직 이해가 잘되지 않은 분야"라고 강조한다. 나는 네트워크가 바로 그런 분야라고 본다. 모두가 세계화에 예기하지만 세계화는 따지고 보면 네트워크화다. (젊은이들이) 50~60대 경제학자들의 말에 매몰되지 말고 앞을 내다보라고 촉고하고 싶다.

정리=강남규 기자  
[사진 밀라노=한불네트워크 이순영] dismal@joongang.co.kr

전남 구례에는 아이쿱생협 조합원의 자본 참여로 만든 자연드림파크가 있습니다.

연간 10만 명이 찾는 관광 명소이며, 약 400개의 청년 일자리로 농촌에 에너지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구례와 곴산의 자연드림파크는 더 나은 사회를 향한 아이쿱생협의 꿈이 실현된 열매입니다.

외형적 성장만이 아닌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고 싶은 조합원의 열망을 담은 '도전입니다'.

이 '도전'은 협동조합의 주인인 조합원의 '민주적 참여'입니다. 시사저널이 말하는 '불법'이 아닙니다.

23만여 아이쿱생협 조합원을 대표한 1,043명의 조합원은 1만원씩의 소송비를 모아서

시사저널에 책임을 물는 명예훼손 소송에 지지와 응원을 보냅니다.

아이쿱생협은 시사저널이 더 이상 늦추지 말고 사과와 정정보도를 진행하길 촉구합니다.